

WEBVTT

00:00:09.907 --> 00:00:11.393

안녕하세요?
여러분.

00:00:11.493 --> 00:00:14.070

여러분과 함께 하는
스마트 상근 쌤입니다.

00:00:14.170 --> 00:00:19.446

제가 여러분께 오늘 총 5강에
걸쳐서 해드릴 강의는

00:00:19.546 --> 00:00:21.099

제목 보시면 아시겠죠?

00:00:21.199 --> 00:00:24.298

나만의 STORY있는
학생부 만들기입니다.

00:00:24.398 --> 00:00:30.776

여러분,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
예비 고1, 혹은 예비 고2.

00:00:30.876 --> 00:00:37.078

즉 현재 중3이거나 고1이 학생들이
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

00:00:37.178 --> 00:00:42.121

특히 중3 학생, 곧 고등학생이
되는 중3 학생 경우에는

00:00:42.221 --> 00:00:44.793

이런 말을 많이
들으실 때가 됐습니다.

00:00:44.893 --> 00:00:48.742

학중이라는 단어를 고등학교
생활 내내 듣게 될 겁니다.

00:00:48.842 --> 00:00:52.836

학중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
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.

00:00:52.936 --> 00:00:58.383

현재 입시에서 가장 많이 인원을
뽑는 전형이 바로 학중입니다.

00:00:58.483 --> 00:01:03.957

이 학중의 가장 기본은 학생부라는
세 글자 짜리 녀석입니다.

00:01:04.057 --> 00:01:07.150

이 학생부라는 녀석이 좀 힘든 게,

00:01:07.250 --> 00:01:12.518

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3 때
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녀석입니다.

00:01:12.618 --> 00:01:17.004

학생부의 관리를 고3이 되면
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돼요.

00:01:17.104 --> 00:01:21.560

문제는 고3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은
이미 완성이 된 상태라는 거죠.

00:01:21.660 --> 00:01:25.507

고3 때 학생부를 어떻게
관리하고 어떤 내용이 하나하나,

00:01:25.607 --> 00:01:28.750

차곡차곡 쌓여있어야 되는지 아는데,

00:01:28.850 --> 00:01:32.525

그때는 모든 것이 결정나
있는 시기라는 겁니다.

00:01:32.625 --> 00:01:37.855

그때 가서 부랴부랴 자소서 쓰고
학생부를 관리해도 늦었다는 거죠.

00:01:37.955 --> 00:01:41.596

특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,
물론 3학년 때 씁니다.

00:01:41.696 --> 00:01:44.733

그러나 자소서의 기본 베이스가
되는 거는 학생부예요.

00:01:44.833 --> 00:01:49.241

학생부에 자소서를
뒷받침할 만한 풍부한 내용이 없다면

00:01:49.341 --> 00:01:52.613

그 자소서는 공허한
활동이 됩니다.

00:01:52.713 --> 00:02:00.030

제가 5강에 걸쳐서 학생부라는 것을
어떻게 차곡차곡 만들지,

00:02:00.130 --> 00:02:03.342

특히 그 학생부가 양으로만
꽉 채워진 게 아니라

00:02:03.442 --> 00:02:06.181

하나의 스토리를 갖게
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.

00:02:06.281 --> 00:02:08.367

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

00:02:08.467 --> 00:02:13.176

꼭 이 5개의 강의를 통해서
여러분의 학생부를 체계적이고

00:02:13.276 --> 00:02:18.497

그리고 스토리 있는, 내용이 있는
알찬 학생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

00:02:18.597 --> 00:02:21.751

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,

00:02:21.851 --> 00:02:24.792

나만의 STORY있는 학생부
만들기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24.892 --> 00:02:31.802

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
스토리, 확장, 그리고 기록입니다.

00:02:31.902 --> 00:02:33.785

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해요.

00:02:33.885 --> 00:02:38.336

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
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

00:02:38.436 --> 00:02:40.311

기록이 되어야 되는데,

00:02:40.411 --> 00:02:45.399

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의
장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

00:02:45.499 --> 00:02:47.857

양보다는 질이라는 표현이 있죠?

00:02:47.957 --> 00:02:51.429

바로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게
학생부 관리입니다.

00:02:51.529 --> 00:02:56.055

제가 왜 이 학생부 만들기 강의의
첫 번째 주제로

00:02:56.155 --> 00:02:59.753

스토리과 확장과 기록을 선택했냐면,

00:02:59.853 --> 00:03:05.730

이러한 것이 빠져 있는 학생부는
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00:03:05.830 --> 00:03:07.877

그런데 고등학교
들어가서 굉장히 많은,

00:03:07.977 --> 00:03:09.690

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.

00:03:09.790 --> 00:03:13.696

그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
것은 학생부 기록입니다.

00:03:13.796 --> 00:03:18.181

학생부 기록은 기본적으로
선생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.

00:03:18.281 --> 00:03:21.395

학생부에 어떤 내용의 글자가

하나하나 들어갈지는

00:03:21.495 --> 00:03:26.318
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
기재하시는 선생님의 역할입니다.

00:03:26.418 --> 00:03:28.644
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
해야 되느냐?

00:03:28.744 --> 00:03:31.158
여러분은 학생부에
어떤 단어가 들어가고

00:03:31.258 --> 00:03:34.985
어떠한 양의 내용이 들어가는지는
여러분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.

00:03:35.085 --> 00:03:38.360
여러분이 관여할 수도 없고
관여해서도 안 됩니다.

00:03:38.460 --> 00:03:40.734
여러분이 신경써야 되는 부분은

00:03:40.834 --> 00:03:43.885
학생부에 기재되는
활동의 내용이에요.

00:03:43.985 --> 00:03:47.685
활동의 내용이 어떤 스토리
라인을 가지고 있어서

00:03:47.785 --> 00:03:52.144
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
보여줄 수 있는지를 신경써야 됩니다.

00:03:52.244 --> 00:03:55.428
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학생부
기재는 선생님이 하지만

00:03:55.528 --> 00:03:58.736
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는
바로 여러분입니다.

00:03:58.836 --> 00:04:01.842
그 내용을 알려드리기
위해서 첫 번째로,

00:04:01.942 --> 00:04:06.127
스토리와 확장과 기록이라는 것을
선택했습니다.

00:04:06.227 --> 00:04:10.262
본격적으로 어떻게 학생부를
스토리있게 확장성을 가지고

00:04:10.362 --> 00:04:15.150
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
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15.250 --> 00:04:17.085

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

00:04:17.185 --> 00:04:19.212

학중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

00:04:19.312 --> 00:04:22.221

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.

00:04:22.321 --> 00:04:26.016

이 강의는 예비 고1이

들을 수도 있지만

00:04:26.116 --> 00:04:30.498

현재 고1, 즉 곧 고등학교

2학년이 되는 친구들에게도

00:04:30.598 --> 00:04:32.933

굉장히 유용한 강의입니다.

00:04:33.033 --> 00:04:36.176

왜냐하면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

00:04:36.276 --> 00:04:38.855

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

때문에 당연히 들으셔야 돼요.

00:04:38.955 --> 00:04:43.085

그리고 고1, 즉 앞으로 고2가

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

00:04:43.185 --> 00:04:44.913

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

00:04:45.013 --> 00:04:48.203

여전히 여러분에게는 1년 반이라는

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,

00:04:48.303 --> 00:04:53.348

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학생부를

만들어갈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04:53.448 --> 00:04:56.552

학중 시대라는 말

들어보셨을 겁니다.

00:04:56.652 --> 00:05:01.164

이제 입시는 학중 시대라는

단어가 붙는

00:05:01.264 --> 00:05:03.866

바야흐로 학중의 시대가 왔습니다.

00:05:03.966 --> 00:05:06.146

왜 학중의 시대가 왔느냐?

간단합니다.

00:05:06.246 --> 00:05:08.374

대학에서 많은 전형이 있는데요.

00:05:08.474 --> 00:05:11.389

그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
학생을 뽑는 전형이 바로

00:05:11.489 --> 00:05:12.908
학생부 전형이에요.

00:05:13.008 --> 00:05:16.669
특히 여러분이 보통 목표로
하는 인서울 대학,

00:05:16.769 --> 00:05:20.920
주요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
학생부는 전형 중에서도

00:05:21.020 --> 00:05:27.225
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엄청나게
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00:05:27.325 --> 00:05:30.795
전체적으로 따져봐도
무려 40%가 넘어요.

00:05:30.895 --> 00:05:32.883
여러분이 대학에 가게 되는,

00:05:32.983 --> 00:05:37.383
즉 2년 뒤나 3년 뒤에는 당연히
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.

00:05:37.483 --> 00:05:40.248
물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

00:05:40.348 --> 00:05:42.766
내신으로만 가는 학생부
전형으로도 갈 수 있고요.

00:05:42.866 --> 00:05:44.153
논술로 갈 수도 있고요.

00:05:44.253 --> 00:05:46.425
수능만 보는 정시로
갈 수 있습니다.

00:05:46.525 --> 00:05:48.078
하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,

00:05:48.178 --> 00:05:51.447
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
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게

00:05:51.547 --> 00:05:54.486
훨씬 더 전략적으로 옳은
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

00:05:54.586 --> 00:05:56.301
보시면 아시겠지만,

00:05:56.401 --> 00:05:59.099
학생부 종합을 전형은
굉장히 많이 뽑아요.

00:05:59.199 --> 00:06:04.277

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
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,

00:06:04.377 --> 00:06:06.725

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
하겠습니다.

00:06:06.825 --> 00:06:10.380

학생부 종합 전형,
학종이라고 이야기할게요.

00:06:10.480 --> 00:06:14.588

학종이라는 거는 보통
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.

00:06:14.688 --> 00:06:16.763

여러분이 많이 듣게
되는 평가인데요.

00:06:16.863 --> 00:06:20.717

입시에서 평가의 종류는
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00:06:20.817 --> 00:06:23.679

하나는 정량평가고
하나는 정성평가예요.

00:06:23.779 --> 00:06:26.122

말이 굉장히 어려워,
그런데 간단합니다.

00:06:26.222 --> 00:06:32.276

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양적인
측정이 가능한 평가예요.

00:06:32.376 --> 00:06:36.850

예를 들어 내신, 내신은
확실하게 숫자가 나오죠?

00:06:36.950 --> 00:06:38.423

1.5 또는 1.6.

00:06:38.523 --> 00:06:41.404

점수에 따라서 등수가 확 갑니다.

00:06:41.504 --> 00:06:44.137

그리고 수능 100%로 가는 정시.

00:06:44.237 --> 00:06:46.990

수능 자체가 점수로 환산되는 거죠.

00:06:47.090 --> 00:06:51.008

그래서 점수 0.1 차이로
인해 당락이 결정될 때,

00:06:51.108 --> 00:06:53.217

이런 거를 정량평가라고 합니다.

00:06:53.317 --> 00:06:57.844

하지만 학종은 정량적

평가 방식은 있습니다.

00:06:57.944 --> 00:07:00.435
왜냐하면 학종에 내신이 들어가요.

00:07:00.535 --> 00:07:04.648
하지만 정량적인 면이
굉장히 대폭 축소됩니다.

00:07:04.748 --> 00:07:07.343
그리고 반대로 점수화할 수 없는

00:07:07.443 --> 00:07:10.716
비교과라든가 독서라든가
교내 활동, 동아리 같은

00:07:10.816 --> 00:07:12.496
평가 항목이 들어가요.

00:07:12.596 --> 00:07:14.435
양으로 승부할 수가 없는 거죠.

00:07:14.535 --> 00:07:17.089
질적인, 내용적인 면을
봐야 되기 때문에

00:07:17.189 --> 00:07:19.955
그러한 것을 평가하는 방식을
정성평가라고 합니다.

00:07:20.055 --> 00:07:25.422
그래서 이 학종은 내신이라는 정량적인
평가 요소도 들어가기는 하지만,

00:07:25.522 --> 00:07:28.652
큰 틀에서 보자면
점수 0.1 차이로

00:07:28.752 --> 00:07:31.197
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
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.

00:07:31.297 --> 00:07:34.681
즉 하나하나의 평가 항목을
평가하는 게 아니라,

00:07:34.781 --> 00:07:37.168
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

00:07:37.268 --> 00:07:41.444
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종합적인
판단을 하는 게, 정성평가입니다.

00:07:41.544 --> 00:07:45.147
그렇기 때문에 학종을
여러분과, 어머니, 아버님이

00:07:45.247 --> 00:07:49.647
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커트라인이
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07:49.747 --> 00:07:52.692

또 이전까지의 시험,
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

00:07:52.792 --> 00:07:55.571

그 전년도의
커트라인이라는 게 나와요.

00:07:55.671 --> 00:07:58.941

이 점수를 받으면 합격을
한다, 불합격을 한다는 게

00:07:59.041 --> 00:08:00.257

명확하게 떨어집니다.

00:08:00.357 --> 00:08:04.521

그런데 학종은 명확한
기준이 없어요.

00:08:04.621 --> 00:08:11.654

작년도에 붙었던 학생이 올해 똑같은
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,

00:08:11.754 --> 00:08:15.921

똑같은 학과, 똑같은 대학에서
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학종입니다.

00:08:16.021 --> 00:08:19.215

그렇기 때문에 굉장히
어렵게 생각을 하는데,

00:08:19.315 --> 00:08:21.393

생각보다 그렇게
어려운 거는 아니에요.

00:08:21.493 --> 00:08:26.020

그래서 전년도 합격자의 기록이
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,

00:08:26.120 --> 00:08:28.348

절대적으로 도움이
되는 거는 아닙니다.

00:08:28.448 --> 00:08:31.302

즉, 작년도 합격했다고 해서
올해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

00:08:31.402 --> 00:08:35.133

전년도 합격자는 말 그대로
참고 자료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.

00:08:35.233 --> 00:08:38.952

그래서 학종은 어떤 질적인
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08:39.052 --> 00:08:43.174

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
양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,

00:08:43.274 --> 00:08:45.958

질적, 양적 준비를

모두 하셔야 됩니다.

00:08:46.058 --> 00:08:49.565
이게 바로 학종이라는 전형이에요.

00:08:49.665 --> 00:08:55.446
특히 전년도 합격자의 스펙을 어떻게
활용해야 되는지 팁을 드릴게요.

00:08:55.546 --> 00:08:58.977
일단 기본적으로 많은
학생이 대학이라든가

00:08:59.077 --> 00:09:00.390
학과 기준을 많이 봅니다.

00:09:00.490 --> 00:09:03.138
그래서 그 대학의
전년도 합격자였던,

00:09:03.238 --> 00:09:06.882
다른 학교의 학생의
자료를 많이 봐요.

00:09:06.982 --> 00:09:12.548
그런데 다른 학교 학생의 자료는
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.

00:09:12.648 --> 00:09:15.687
왜냐하면 비슷한 학생이기
때문에 그래요.

00:09:15.787 --> 00:09:19.580
하지만 각 고등학교마다
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고

00:09:19.680 --> 00:09:22.927
프로그램의 질적,
양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

00:09:23.027 --> 00:09:27.594
다른 학교 학생의 자료를
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기에는

00:09:27.694 --> 00:09:28.947
살짝 무리가 있어요.

00:09:29.047 --> 00:09:34.994
그래서 가장 좋은 자료는
여러분 학교의 선배의 자료가

00:09:35.094 --> 00:09:37.024
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

00:09:37.124 --> 00:09:40.181
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루고
있는 학교의 환경을

00:09:40.281 --> 00:09:44.289
100% 반영한 자료이기 때문에
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

00:09:44.389 --> 00:09:49.904
그리고 모든 학교는 고3의 작년도
스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

00:09:50.004 --> 00:09:52.242
담임 선생님도 가지고
제시기 때문에

00:09:52.342 --> 00:09:56.363
궁금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
여쭙봐서 자료를 얻기를 바랍니다.

00:09:56.463 --> 00:10:00.882
그래서 전년도 선배들이
어떤 교과넷을 가지고

00:10:00.982 --> 00:10:04.125
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
어떤 수상 내용이 있으며,

00:10:04.225 --> 00:10:06.889
어떤 교내 활동,
어떤 독서 활동을 했는지를

00:10:06.989 --> 00:10:08.694
꼭 참고하셔야 됩니다.

00:10:08.794 --> 00:10:11.488
다른 학교 자료보다
같은 학교를 졸업한,

00:10:11.588 --> 00:10:15.891
또는 학교 선배들의 자료가 훨씬
더 월등히 좋은 자료라는 거,

00:10:15.991 --> 00:10:17.311
말씀드리고 싶고요.

00:10:17.411 --> 00:10:19.543
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
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.

00:10:19.643 --> 00:10:24.110
지원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
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

00:10:24.210 --> 00:10:26.886
동일한 대학, 동일한
학과라 할지라도

00:10:26.986 --> 00:10:31.326
전년도와 다르게 학생을 선발하는
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.

00:10:31.426 --> 00:10:33.623
왜냐하면 평가 요소의 비율이
바뀔 수도 있고요.

00:10:33.723 --> 00:10:38.409
서류라든가 학생부라든가 면접의

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

00:10:38.509 --> 00:10:40.361
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

00:10:40.461 --> 00:10:42.920
더군다나 뽑는 인원도
바뀔 수가 있어요.

00:10:43.020 --> 00:10:45.866
그래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짤 때는,

00:10:45.966 --> 00:10:48.279
모든 거를 종합적으로
판단하셔야 됩니다.

00:10:48.379 --> 00:10:50.920
여러분 학교 선배의
자료도 보셔야 되고

00:10:51.020 --> 00:10:54.427
특히 대학교 홈페이지에
가서 올해 입시가

00:10:54.527 --> 00:10:56.775
작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
파악을 하셔야 돼요.

00:10:56.875 --> 00:11:00.062
이러한 것들 모두
종합적으로 판단해서

00:11:00.162 --> 00:11:03.952
전년도 학생의 자료를
활용을 해야 됩니다.

00:11:04.052 --> 00:11:10.436
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
학종이라는 전형에 유리할까요?

00:11:10.536 --> 00:11:12.962
보통 많은 언론은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11:13.062 --> 00:11:17.876
금수저, 타고난 능력,
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학생들.

00:11:17.976 --> 00:11:19.596
굉장히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

00:11:19.696 --> 00:11:22.339
그리고 수백만 원짜리
컨설팅은 받은 학생들이

00:11:22.439 --> 00:11:24.119
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

00:11:24.219 --> 00:11:27.143
그리고 일반고에 비해서
특목고, 자사고 학생들이

00:11:27.243 --> 00:11:31.903

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
이야기를 합니다.

00:11:32.003 --> 00:11:33.810

하지만 생각해 보세요.

00:11:33.910 --> 00:11:38.544

이런 세 종류의 학생들이
유리하지 않은 전형이 있습니까?

00:11:38.644 --> 00:11:45.034

학생부 내신 전형, 논술 전형,
수능 100%인 정시 전형, 특기자 전형.

00:11:45.134 --> 00:11:49.426

모든 대학입시는 이런 전형의
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.

00:11:49.526 --> 00:11:52.624

학종이라고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
특혜를 주는 거는 아니에요.

00:11:52.724 --> 00:11:58.272

오히려 학종은 이들 학생보다는
일반고의 특정한 학생들에게

00:11:58.372 --> 00:12:01.287

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
저는 생각합니다.

00:12:01.387 --> 00:12:04.927

절대로 금수저,
고액컨설팅은 받는 학생들,

00:12:05.027 --> 00:12:10.012

특목자사고에게만 유리한
전형이 절대 아니에요.

00:12:10.112 --> 00:12:14.129

오히려 이 학종이라고 하는
전형은 일반고에 다니는,

00:12:14.229 --> 00:12:18.234

여러분처럼 평범한 학생들에게
유리한 전형입니다.

00:12:18.334 --> 00:12:23.326

특히 이런 분들에게 절대적으로
유리한 전형이에요.

00:12:23.426 --> 00:12:28.490

첫 번째, 진로와 꿈을 정한
학생들, 정말 유리합니다.

00:12:28.590 --> 00:12:32.970

두 번째, 끊임없는 고민과
성찰을 하는 학생들.

00:12:33.070 --> 00:12:35.422

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.

00:12:35.522 --> 00:12:38.812

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전략을
짜고 준비하는 학생들.

00:12:38.912 --> 00:12:43.317

이 네 부류의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
유리한 전형이 학종이라는 거죠.

00:12:43.417 --> 00:12:47.126

특히 첫 번째,
진로와 꿈을 정한 학생.

00:12:47.226 --> 00:12:51.914

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
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

00:12:52.014 --> 00:12:55.477

왜냐하면 진로와 꿈을
정한 학생의 경우는

00:12:55.577 --> 00:12:58.358

자기의 목표 의식이 명확합니다.

00:12:58.458 --> 00:13:02.039

명확하기 때문에 교내
활동 하나하나에 있어서

00:13:02.139 --> 00:13:07.382

자기의 꿈이라든가 진로라든가
진학할 학과에 일관성을 보이게 돼요.

00:13:07.482 --> 00:13:09.506

그냥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

00:13:09.606 --> 00:13:11.812

양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
하는 게 아닙니다.

00:13:11.912 --> 00:13:14.043

진정으로 자신의 꿈에
도움이 되기 때문에

00:13:14.143 --> 00:13:16.248

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활동을 해요.

00:13:16.348 --> 00:13:19.049

그렇기 때문에
이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,

00:13:19.149 --> 00:13:22.955

하나하나 연결해보면 이 학생의
진로란을 보지 않고도

00:13:23.055 --> 00:13:25.163

이 학생이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,

00:13:25.263 --> 00:13:27.785

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
드러나게 됩니다.

00:13:27.885 --> 00:13:30.889

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
활동을 하기 때문에,

00:13:30.989 --> 00:13:34.743

이 학생의 활동에서
진정성이 느껴지고요.

00:13:34.843 --> 00:13:39.925

자소서라든가 면접을 볼 때 여타
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차별화,

00:13:40.025 --> 00:13:42.799

그런 차별화되는 모습을
가지게 됩니다.

00:13:42.899 --> 00:13:47.710

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
훨씬 더 일찍 준비할 수가 있게 돼요.

00:13:47.810 --> 00:13:49.829

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13:49.929 --> 00:13:54.291

진로라든가 여러분의 꿈을 하루빨리
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

00:13:54.391 --> 00:13:57.012

제가 그래서 이 다음 강의 시간에

00:13:57.112 --> 00:14:00.168

진로에 대해서 굉장히
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.

00:14:00.268 --> 00:14:03.551

두 번째 강의에서 진로에 관한
내용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

00:14:03.651 --> 00:14:06.228

두 번째로 어떤 학생이 유리하냐면,

00:14:06.328 --> 00:14:10.876

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 성찰을
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.

00:14:10.976 --> 00:14:13.886

예전에 수능만 보는 시대에서는,

00:14:13.986 --> 00:14:16.440

이런 학생들이 오히려
좀 불리했어요.

00:14:16.540 --> 00:14:20.698

왜냐하면 옛날에는 수능만
잘 보고 내신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

00:14:20.798 --> 00:14:22.405

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죠.

00:14:22.505 --> 00:14:23.884

기계적으로 공부하고

00:14:23.984 --> 00:14:26.862
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한
학생들한테 유리했어요.

00:14:26.962 --> 00:14:29.244
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

00:14:29.344 --> 00:14:32.694
끊임없이 성찰하는
학생들한테는 불리했습니다.

00:14:32.794 --> 00:14:35.851
왜냐하면 공부도 하기는 하지만

00:14:35.951 --> 00:14:38.177
자기 내면에 대해서 성찰을
많이 하기 때문에

00:14:38.277 --> 00:14:42.015
양적으로 드러나는 성적이라든가,
질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.

00:14:42.115 --> 00:14:45.320
하지만 학종 전형은 다릅니다.

00:14:45.420 --> 00:14:48.517
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
학생에게 유리해요.

00:14:48.617 --> 00:14:51.781
오히려 기계적으로 공부하는
학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

00:14:51.881 --> 00:14:52.985
학종 전형입니다.

00:14:53.085 --> 00:14:56.114
그래서 끊임없는 고민과
성찰하는 학생들은

00:14:56.214 --> 00:14:58.342
자기 활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.

00:14:58.442 --> 00:15:00.701
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
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.

00:15:00.801 --> 00:15:02.190
허투루 활동을 하지 않아요.

00:15:02.290 --> 00:15:04.921
하나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
엄청나게 고민을 하고

00:15:05.021 --> 00:15:07.920
그리고 이 활동 다음에
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를

00:15:08.020 --> 00:15:10.078

고민하고 성찰하게 돼요.

00:15:10.178 --> 00:15:13.325

그래서 하나의 활동 다음에
이어진 다른 활동이

00:15:13.425 --> 00:15:17.070

훨씬 더 다른 학생들에
비해서 수준이 높습니다.

00:15:17.170 --> 00:15:21.173

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게 될
학과에 대한 이해도가

00:15:21.273 --> 00:15:23.585

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.

00:15:23.685 --> 00:15:26.978

이런 학생들의 특징은
자기 소개서라든가

00:15:27.078 --> 00:15:30.006

면접에서 두드러지게
나타나게 됩니다.

00:15:30.106 --> 00:15:33.589

그래서 평상시에 고민이
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

00:15:33.689 --> 00:15:39.671

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는
친구들한테 유리한 게 학종입니다.

00:15:39.771 --> 00:15:45.551

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학생, 학종의
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15:45.651 --> 00:15:50.386

왜냐하면 학생부 자체가
선생님이 기재를 하는 거죠.

00:15:50.486 --> 00:15:56.281

그런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
학생을 관리하고 관찰하십니다.

00:15:56.381 --> 00:16:00.111

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업에
참여하는 학생에게

00:16:00.211 --> 00:16:03.171

좀 더 관찰을 하게
되고 그 학생에 대해서

00:16:03.271 --> 00:16:06.663

하나라도 더 써주기 위해서
노력을 하게 됩니다.

00:16:06.763 --> 00:16:10.206

그래서 적극적인 학생의 경우는
당연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,

00:16:10.306 --> 00:16:13.236
풍부한 내용이 담기지게 되는 거예요.

00:16:13.336 --> 00:16:18.289
특히 학종 시대의 가장 중요한
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세특.

00:16:18.389 --> 00:16:20.953
교과세특은 제3장에서
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.

00:16:21.053 --> 00:16:25.619
교과세특은 교과 선생님이
여러분에 대해서 써주는

00:16:25.719 --> 00:16:27.236
일종의 추천서와 비슷한 겁니다.

00:16:27.336 --> 00:16:30.720
수업 시간에 벌어진 모든 내용을
담아내는 게 교과세특이에요.

00:16:30.820 --> 00:16:33.586
그런데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
활동을 하고 발표하고

00:16:33.686 --> 00:16:36.447
질문하는 학생들에게
당연히 그에 걸맞는

00:16:36.547 --> 00:16:38.551
교과세특이 쓰여지게 됩니다.

00:16:38.651 --> 00:16:42.031
그리고 적극성이라는 것과
거의 동일한 단어인

00:16:42.131 --> 00:16:44.931
리더십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.

00:16:45.031 --> 00:16:48.101
그래서 적극적인 학생에게
굉장히 유리한 전형이고요.

00:16:48.201 --> 00:16:53.519
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전략을
짜고 준비를 하는 학생입니다.

00:16:53.619 --> 00:16:55.831
이거는 다른 전형과 비슷합니다.

00:16:55.931 --> 00:16:59.443
모든 전형은 체계적인 전략을
짜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.

00:16:59.543 --> 00:17:02.928
왜냐하면 학종은 수능처럼
하루만 잘 보면 되는,

00:17:03.028 --> 00:17:04.548
그런 전형이 아닙니다.

00:17:04.648 --> 00:17:10.383

내신처럼 일정 기간 공부를
몰아쳐서 좋은 성적만 가지면

00:17:10.483 --> 00:17:13.346

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.

00:17:13.446 --> 00:17:19.081

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
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

00:17:19.181 --> 00:17:23.334

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
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

00:17:23.434 --> 00:17:25.453

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.

00:17:25.553 --> 00:17:28.794

그래야지만 스토리 있는
학생부가 완성이 됩니다.

00:17:28.894 --> 00:17:32.359

그리고 활동의 확장과 연결이라는,

00:17:32.459 --> 00:17:37.274

학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
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겠죠.

00:17:37.374 --> 00:17:41.832

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으면
활동 다음에 어떤 활동이 연결되고

00:17:41.932 --> 00:17:46.004

이 활동이 다음 활동으로
어떻게 확장되는지

00:17:46.104 --> 00:17:48.407

체계적으로 나올 수 없게 됩니다.

00:17:48.507 --> 00:17:50.567

그래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고

00:17:50.667 --> 00:17:54.099

이로 인해 스토리 있는 학생부를
만드는 학생들의 경우는

00:17:54.199 --> 00:17:55.515

당연히 학종 전형에서
합격할 가능성이

00:17:55.615 --> 00:17:58.649

그 누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.

00:17:58.749 --> 00:18:00.398

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00:18:00.498 --> 00:18:03.507

그래서 학종은
이 네 부류의 학생들.

00:18:03.607 --> 00:18:06.723

오히려 예전 같으면
불리했던 학생들.

00:18:06.823 --> 00:18:11.267

하지만 21세기에 인재를 뽑기 위해서
대학들은 전형을 바꿨습니다.

00:18:11.367 --> 00:18:13.400

기계적으로 공부만 하는 학생들,

00:18:13.500 --> 00:18:16.344

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는
학생들, 물론 뽑습니다.

00:18:16.444 --> 00:18:19.070

뽑지만 대세는 학종이에요.

00:18:19.170 --> 00:18:22.477

이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
따로 만들어져 있어요.

00:18:22.577 --> 00:18:26.685

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
자신의 꿈을 쫓는

00:18:26.785 --> 00:18:31.173

진취적이고 발전 가능성이
높은 젊은이를 뽑는 전형이

00:18:31.273 --> 00:18:33.398

바로 학종이라고 하죠.

00:18:33.498 --> 00:18:36.511

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절대적으로
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

00:18:36.611 --> 00:18:42.975

일반고에 다니는 여러분에게 굉장히
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18:43.075 --> 00:18:47.436

그러면 학종이라는 거를 어떻게
준비를 해야 될까요?

00:18:47.536 --> 00:18:49.551

키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

00:18:49.651 --> 00:18:55.570

학종은 스토리와 확장과 그리고
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기록.

00:18:55.670 --> 00:18:58.688

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게 돼요.

00:18:58.788 --> 00:19:01.387

이 세 가지 키워드를
잘 이용하시면,

00:19:01.487 --> 00:19:05.063

여러분 학생부는 그 누구보다
풍부해지게 되고요.

00:19:05.163 --> 00:19:07.852
여러분이 어떠한 활동을
했는지를 통해서

00:19:07.952 --> 00:19:10.794
여러분의 꿈이 뭔지,
왜 우리 학과에 진학했는지,

00:19:10.894 --> 00:19:15.593
자소서를 통하지 않고도
입학사정관들이 다 알게 됩니다.

00:19:15.693 --> 00:19:17.880
처음에 스토리입니다.

00:19:17.980 --> 00:19:20.575
굉장히 중요하죠,
많이 들었을 거예요.

00:19:20.675 --> 00:19:21.839
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.

00:19:21.939 --> 00:19:25.922
학생부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
자기 소개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

00:19:26.022 --> 00:19:29.285
도대체 스토리가 무엇일까요?

00:19:29.385 --> 00:19:34.708
여러분의 학생부에는 이 세 가지
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.

00:19:34.808 --> 00:19:37.129
여러분 학생부를 딱 펼쳤을 때,

00:19:37.229 --> 00:19:40.805
자소서의 도움 없이도
학생부만 읽으면,

00:19:40.905 --> 00:19:44.151
여러분이 도대체 어떠한
꿈을 갖고 있는지

00:19:44.251 --> 00:19:46.323
어떠한 학과에 오고 싶어 했는지,

00:19:46.423 --> 00:19:49.508
왜 우리 학과에 왔는지가
드러나야 됩니다.

00:19:49.608 --> 00:19:54.139
그리고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
노력을 했는지 들어있어야 되고요.

00:19:54.239 --> 00:19:59.493
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여러분이
입시를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

00:19:59.593 --> 00:20:04.018
어떻게 과거와는 다르게 성장했는지가
드러나 있어야 됩니다.

00:20:04.118 --> 00:20:06.473
이런 게 드러나있는 게 뭘니까?

00:20:06.573 --> 00:20:08.824
스토리가 있는 학생부라는 겁니다.

00:20:08.924 --> 00:20:10.719
굉장히 중요해요.

00:20:10.819 --> 00:20:14.821
펼쳐는데 양은 많아요,
그런데 활동이 중구난방이고

00:20:14.921 --> 00:20:18.805
이 학생부를 봤을 때 도저히
왜 우리 과에 왔는지를 모르겠는

00:20:18.905 --> 00:20:23.111
학생부라면 양만 많지 질적으로
떨어지는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.

00:20:23.211 --> 00:20:24.453
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.

00:20:24.553 --> 00:20:27.312
학생부의 양이 많다고 해서
학중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.

00:20:27.412 --> 00:20:31.604
학생부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
이 학생의 진정성이 느껴지고

00:20:31.704 --> 00:20:34.476
학생부 내에서 스토리가
느껴지게 되면,

00:20:34.576 --> 00:20:37.432
이 학생은 오히려 좋은
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00:20:37.532 --> 00:20:40.056
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
중요한 거예요.

00:20:40.156 --> 00:20:41.664
진로, 진학입니다.

00:20:41.764 --> 00:20:46.722
학생부를 펼쳤을 때 여러분에 대한
모든 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.

00:20:46.822 --> 00:20:49.480
왜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했는지,

00:20:49.580 --> 00:20:54.784
왜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

왔는지가 드러나있어야 됩니다.

00:20:54.884 --> 00:20:58.546

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
위해서 우리 학과에 와서,

00:20:58.646 --> 00:21:02.693

여러분이 나중에 무엇을 할 건지
드러나 있어야 돼요.

00:21:02.793 --> 00:21:05.628

이러한 내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,

00:21:05.728 --> 00:21:08.113

여러분이 교내 활동
하나하나에 있어서

00:21:08.213 --> 00:21:12.008

꿈을 투영해야 되고 진정성을
보여줘야 되는 겁니다.

00:21:12.108 --> 00:21:14.774

이러한 것이 되어 있지
않은 인위적인 것.

00:21:14.874 --> 00:21:17.407

내가 직접 하지 않은,
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.

00:21:17.507 --> 00:21:20.994

실제로 하지 않고
거짓으로 꾸며난 학생부.

00:21:21.094 --> 00:21:24.099

입학사정관들은
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

00:21:24.199 --> 00:21:26.325

수년 간의 노하우가
쌓인 분들이에요.

00:21:26.425 --> 00:21:28.426

학생부에 어떤 내용이
기재되어있는지,

00:21:28.526 --> 00:21:31.911

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,
나중에 면접 과정을 통해서

00:21:32.011 --> 00:21:34.822

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.

00:21:34.922 --> 00:21:39.045

여러분의 진정성을 확인하게
되고 알게 됩니다.

00:21:39.145 --> 00:21:41.564

이런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00:21:41.664 --> 00:21:43.432

두 번째 노력입니다.

00:21:43.532 --> 00:21:46.343

여러분 학생부에는
어떤 활동을 했는지,

00:21:46.443 --> 00:21:49.639

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
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

00:21:49.739 --> 00:21:51.516

투영이 되어야 됩니다.

00:21:51.616 --> 00:21:56.250

이런 노력의 과정은 이거를
기재하고 관찰했던 선생님은

00:21:56.350 --> 00:21:57.892

잘 모를 수가 있어요.

00:21:57.992 --> 00:22:03.489

이 노력이라는 측면은 여러분이
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.

00:22:03.589 --> 00:22:07.060

하나의 활동을 했을 때
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은

00:22:07.160 --> 00:22:09.283

대부분 결과만 알고 계십니다.

00:22:09.383 --> 00:22:13.477

물론 특정 선생님의 경우 여러분에게
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,

00:22:13.577 --> 00:22:16.078

평상시에 관찰을 많이 하시겠죠.

00:22:16.178 --> 00:22:20.538

관찰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노력한
모습을 담아낼 수도 있어요.

00:22:20.638 --> 00:22:24.447

하지만 그런 친구는
굉장히 드뭅니다.

00:22:24.547 --> 00:22:29.833

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
했는지 어필해줘야 됩니다.

00:22:29.933 --> 00:22:31.846
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22:31.946 --> 00:22:35.321

그리고 여러분이 지원
학과에 대해서,

00:22:35.421 --> 00:22:37.628

지원 학과에 원서를 내잖아요?

00:22:37.728 --> 00:22:40.590

그리고 학생부를

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,

00:22:40.690 --> 00:22:42.945
여러분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

00:22:43.045 --> 00:22:47.788
도대체 어떠한 노력을
했는지 알아야 됩니다.

00:22:47.888 --> 00:22:51.269
학생부에 나와 있는
하나하나의 활동 자체가

00:22:51.369 --> 00:22:54.138
이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해줘요.

00:22:54.238 --> 00:22:57.420
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활동
하나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

00:22:57.520 --> 00:23:02.010
연결되는 활동 모든 곳에서 이러한
점들이 드러나야 됩니다.

00:23:02.110 --> 00:23:05.380
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
수동적으로 해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.

00:23:05.480 --> 00:23:08.365
왜냐하면 학생부는 결과만
기재되기 때문입니다.

00:23:08.465 --> 00:23:12.629
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활동한
과정을 기록하셔야 되고요.

00:23:12.729 --> 00:23:16.364
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
제출하셔야 됩니다.

00:23:16.464 --> 00:23:21.480
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노력한 과정이
학생부에 녹아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.

00:23:21.580 --> 00:23:24.264
적극적이지 않은
학생들이 왜 불리할까?

00:23:24.364 --> 00:23:25.893
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23:25.993 --> 00:23:27.928
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.

00:23:28.028 --> 00:23:29.438
활동 많이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.

00:23:29.538 --> 00:23:33.924
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으면
학생부는 결과만 기록되지,

00:23:34.024 --> 00:23:38.577

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전혀 기록돼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.

00:23:38.677 --> 00:23:40.798

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00:23:40.898 --> 00:23:45.657

세 번째, 여러분 학생부에는 성장이라는 포인트가

00:23:45.757 --> 00:23:48.388

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

00:23:48.488 --> 00:23:50.598

여러분,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

00:23:50.698 --> 00:23:52.797

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.

00:23:52.897 --> 00:23:56.963

그런데 이 결과를 보인 활동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.

00:23:57.063 --> 00:24:00.694

이 활동이 이어지는 또다른 활동에서 봤을 때,

00:24:00.794 --> 00:24:04.058

여러분이 전혀 나아진 모습이 드러나있지 않으면

00:24:04.158 --> 00:24:07.708

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그다음 활동의 가치는

00:24:07.808 --> 00:24:10.396

오히려 떨어지게 돼요.

00:24:10.496 --> 00:24:14.272

그래서 여러분은 활동을 할 때, 특히 그 다음 활동을 할 때는

00:24:14.372 --> 00:24:19.206

여러분이 그 전보다 한 단계 올라가고 성장하고

00:24:19.306 --> 00:24:23.290

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.

00:24:23.390 --> 00:24:27.045

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활동의 결과로써 드러나게 돼요.

00:24:27.145 --> 00:24:30.432

성장은 성적의 상승일 수도 있고요.

00:24:30.532 --> 00:24:32.724

심화된 독서일 수도 있고요.

00:24:32.824 --> 00:24:36.590

좀 더 한 단계 어려운
심화활동일 수도 있습니다.

00:24:36.690 --> 00:24:40.001

그리고 그 전 단계에
실패했었던 활동에 대해서

00:24:40.101 --> 00:24:44.085

그 다음 활동을 했을 때 성공의
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게 돼요.

00:24:44.185 --> 00:24:45.740

어떠한 형태든 좋습니다.

00:24:45.840 --> 00:24:52.024

그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
면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.

00:24:52.124 --> 00:24:55.135

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
활동을 해요.

00:24:55.235 --> 00:24:56.976

하고 나서 결과가 나옵니다.

00:24:57.076 --> 00:24:58.718

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

00:24:58.818 --> 00:25:03.281

여러분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
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가

00:25:03.381 --> 00:25:04.882

투영돼야 됩니다.

00:25:04.982 --> 00:25:06.623

이러한 것도 바로 뭐니까?

00:25:06.723 --> 00:25:09.918

선생님들은 몰라요, 선생님들은
결과만 알뿐입니다.

00:25:10.018 --> 00:25:13.084

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
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

00:25:13.184 --> 00:25:15.709

이 학생이 이 활동을
통해서 무엇을 느끼고

00:25:15.809 --> 00:25:20.660

어떻게 성장했는지 학생부에
기재되지 않아요.

00:25:20.760 --> 00:25:23.065

그러면 왜 대학은
여러분의 학생부에서

00:25:23.165 --> 00:25:27.006

성장이라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될까요?

00:25:27.106 --> 00:25:28.439
대학은 똑같습니다.

00:25:28.539 --> 00:25:30.966
대학은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.

00:25:31.066 --> 00:25:33.232
뽑는 학생들은 다
뭐를 보는 겁니까?

00:25:33.332 --> 00:25:37.168
이 학생의 비전과 발전
가능성을 보고 뽑는 겁니다.

00:25:37.268 --> 00:25:42.217
이 학생의 학생부 내에서 발전
가능성이 없으면 뽑을 필요가 없죠.

00:25:42.317 --> 00:25:44.185
대학의 목표가 뭐니까?

00:25:44.285 --> 00:25:49.465
현재 1단계에 있는 학생들을
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

00:25:49.565 --> 00:25:52.226
3, 4단계, 좀 더 높은
위치에 있는 학생으로

00:25:52.326 --> 00:25:56.682
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하는 게
고등기관인 대학의 역할입니다.

00:25:56.782 --> 00:25:58.917
그러면 이 대학들은 어때요?

00:25:59.017 --> 00:26:02.795
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
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26:02.895 --> 00:26:08.325
이러한 점들은 학생부와 자소서와
면접에서 보여줘야 됩니다.

00:26:08.425 --> 00:26:14.320
그래서 이 스토리 있는 학생부가
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

00:26:14.420 --> 00:26:18.543
그래서 스토리, 꼭 기억을
하시기 바랍니다.

00:26:18.643 --> 00:26:21.499
두 번째입니다, 확장이에요.

00:26:21.599 --> 00:26:24.915
확장, 많이 들어볼 단어입니다.

00:26:25.015 --> 00:26:28.617

확장이라는 게 뭘니까?
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.

00:26:28.717 --> 00:26:30.286

학생부도 똑같아요.

00:26:30.386 --> 00:26:32.656

하나의 활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,

00:26:32.756 --> 00:26:36.315

활동이 그다음 단계 활동으로
좀 더 업그레이드되고

00:26:36.415 --> 00:26:39.873

다른 활동의 촉진제
역할을 하는 게 뭘니까?

00:26:39.973 --> 00:26:43.317

확장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.

00:26:43.417 --> 00:26:46.196

확장의 키워드를 보면 크게
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

00:26:46.296 --> 00:26:47.688

연계, 연결이고요.

00:26:47.788 --> 00:26:49.660

그 다음에 교과 중심이어야 되고요.

00:26:49.760 --> 00:26:52.691

마지막, 심화활동이라는 게 반드시
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.

00:26:52.791 --> 00:26:58.286

첫 번째, 확장의 키포인트
연계와 연결입니다.

00:26:58.386 --> 00:26:59.746

굉장히 중요해요.

00:26:59.846 --> 00:27:02.739

스토리과 더불어, 스토리와
거의 일맥상통합니다.

00:27:02.839 --> 00:27:04.105

스토리라는 게 뭘예요?

00:27:04.205 --> 00:27:08.723

단절되지 않고 부드럽게 정해진
선을 따라 이어지는 거죠.

00:27:08.823 --> 00:27:11.681

그 이어지는 하나하나의
항목이 바로 뭘예요?

00:27:11.781 --> 00:27:14.486

연계와 연결이라는 겁니다.

00:27:14.586 --> 00:27:17.849

많은 친구가 놓치고
있는 항목이기도 해요.

00:27:17.949 --> 00:27:21.012
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
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.

00:27:21.112 --> 00:27:23.553
학생부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.

00:27:23.653 --> 00:27:28.814
이 학생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,
활동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.

00:27:28.914 --> 00:27:30.201
단절되는 거예요.

00:27:30.301 --> 00:27:33.773
어떤 활동을 통해서 도대체
뭐를 하고 싶은지,

00:27:33.873 --> 00:27:37.437
뭐를 보여주고 싶은지가
안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.

00:27:37.537 --> 00:27:39.496
그런 친구들이 놓치는 게
바로 뭐니까?

00:27:39.596 --> 00:27:41.399
활동의 연결성이예요.

00:27:41.499 --> 00:27:45.852
특히 활동은 많은데 이 활동이
다 일회성 활동입니다.

00:27:45.952 --> 00:27:48.297
일회성 활동은 많아봤자 소용없어요.

00:27:48.397 --> 00:27:52.012
일회성 활동이 다음 단계 활동과
연결되지 않고

00:27:52.112 --> 00:27:55.536
동계되지 않고 촉진제
역할을 하지 않으면,

00:27:55.636 --> 00:27:58.230
그 활동은 하나마나의 활동입니다.

00:27:58.330 --> 00:28:01.779
그냥 학생부 양을 늘려주는
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.

00:28:01.879 --> 00:28:06.279
중요한 거는 모든 활동을 하나의
활동으로 그치지 마세요.

00:28:06.379 --> 00:28:10.558
예를 들어, 고등학교 들어가게
되면 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.

00:28:10.658 --> 00:28:12.552
특강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.

00:28:12.652 --> 00:28:14.190
특강 같은 거는 여러분의
학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

00:28:14.290 --> 00:28:16.505
굉장히 많이 듣습니다.

00:28:16.605 --> 00:28:18.614
듣고 끝이에요.

00:28:18.714 --> 00:28:21.450
그 이후의 활동 과정을
전혀 하지 않습니다.

00:28:21.550 --> 00:28:24.825
예를 들어 저자와의
만남이 있다고 칩시다.

00:28:24.925 --> 00:28:27.228
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들어요.

00:28:27.328 --> 00:28:32.183
듣고 그냥 들었다는
내용만 쓰고 끝나요.

00:28:32.283 --> 00:28:34.456
이렇게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.

00:28:34.556 --> 00:28:38.043
저자 강의를 듣기 전에 일단
그 책을 읽어보셔야 되고

00:28:38.143 --> 00:28:40.945
내가 왜 이 특강을 들어야 되는지
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

00:28:41.045 --> 00:28:44.294
그리고 이 저자에게
질문할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.

00:28:44.394 --> 00:28:47.252
특강을 듣고 나서
그 저자에게 물어보고

00:28:47.352 --> 00:28:49.138
자기의 궁금증을 풀어야 됩니다.

00:28:49.238 --> 00:28:52.853
그리고 나서 이 저자와의 특강을
통해서 얻은 부분을 가지고

00:28:52.953 --> 00:28:56.340
다른 활동, 심화 독서라든가
동아리 활동이라든가

00:28:56.440 --> 00:28:59.685
교과 내 발표로 연결해줘야 됩니다.

00:28:59.785 --> 00:29:03.390
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연결되는 게
진정한 스토리 있는,

00:29:03.490 --> 00:29:05.279
그리고 확장에 걸맞는 활동이지.

00:29:05.379 --> 00:29:10.439
활동을 하고 딱 끊기는 거는 전혀
가치가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.

00:29:10.539 --> 00:29:13.625
그래서 확장이라는 거는
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

00:29:13.725 --> 00:29:17.313
하나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
그다음 단계에 촉진제,

00:29:17.413 --> 00:29:18.972
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는.

00:29:19.072 --> 00:29:23.110
즉 성장과 연결되는 활동으로서의
확장을 하셔야 됩니다.

00:29:23.210 --> 00:29:25.357
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?

00:29:25.457 --> 00:29:28.504
하나의 활동인 데도 굉장히
성찰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.

00:29:28.604 --> 00:29:31.792
끊임없는 고민과 상담을
하셔야 됩니다.

00:29:31.892 --> 00:29:37.683
이러한 거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의
학생부가 남들과는 차별화가 돼요.

00:29:37.783 --> 00:29:40.624
왜냐하면 학종이 굉장히
중요하다는 사실을

00:29:40.724 --> 00:29:43.067
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.

00:29:43.167 --> 00:29:44.245
학교도 알고 있어요.

00:29:44.345 --> 00:29:47.273
예전과 다르게 일반고가
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.

00:29:47.373 --> 00:29:50.071
특목자사고에 뒤지지 않는 프로그램과

00:29:50.171 --> 00:29:54.143
여러 가지 활동과 교내

대회가 많습니다.

00:29:54.243 --> 00:29:57.007

즉 뭐냐, 여러분의 학생부.

00:29:57.107 --> 00:30:01.117

학교 활동 자체는 점점
상향평준화가 되고 있어요.

00:30:01.217 --> 00:30:03.731

여러분이 대학 입시에 들어가잖아요?

00:30:03.831 --> 00:30:06.456

여러분의 모든 활동은
그 전년도에 있었던

00:30:06.556 --> 00:30:09.326

평균적인 학생의
활동보다 업그레이드되고

00:30:09.426 --> 00:30:12.185

한 단계 성장된 활동을
하고 있습니다.

00:30:12.285 --> 00:30:15.548

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부 활동이
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

00:30:15.648 --> 00:30:19.587

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순히
하나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

00:30:19.687 --> 00:30:22.798

좀 더 남들과 차별화되는
활동을 하셔야 됩니다.

00:30:22.898 --> 00:30:25.296

그 차별화에 기폭제가
되는 게 바로 뭐니까?

00:30:25.396 --> 00:30:29.323

성찰과 고민이고 그로 인한
활동의 확장성이예요.

00:30:29.423 --> 00:30:31.903

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.

00:30:32.003 --> 00:30:36.388

두 번째, 여러분이 또 많이 오해하고
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

00:30:36.488 --> 00:30:43.245

학종은 교과라는 측면을 굉장히
낮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.

00:30:43.345 --> 00:30:45.965

정말로 큰 착각이에요.

00:30:46.065 --> 00:30:48.911

한국형 학종, 보통
입학사정관제였죠, 옛날에는.

00:30:49.011 --> 00:30:52.010

옛날 입학사정관제는
미국식이었습니다.

00:30:52.110 --> 00:30:54.862

말 그대로 교과외 비중이 낮았어요.

00:30:54.962 --> 00:30:58.793

비교과 활동, 즉 성적과 상관없는
교내 활동량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.

00:30:58.893 --> 00:31:01.292

그런데 이거에 대한
부작용으로 인해서

00:31:01.392 --> 00:31:06.417

요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종은
예전 입학사정관제하고는

00:31:06.517 --> 00:31:08.953

정반대의 성향을 띠니다.

00:31:09.053 --> 00:31:14.286

즉, 예전의 입학사정관제에서
뒤로 물러났던

00:31:14.386 --> 00:31:17.668

교과라는 측면을 전면으로
내세우게 됩니다.

00:31:17.768 --> 00:31:21.270

학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내
활동만 강조하는 거는 아니에요.

00:31:21.370 --> 00:31:23.258

기존 베이스는 교과입니다.

00:31:23.358 --> 00:31:28.030

내신이라는 기본 베이스와
교과세특과 교내 대회라는

00:31:28.130 --> 00:31:31.707

그런 교과를 나타내는
기본 베이스를 깔고

00:31:31.807 --> 00:31:37.454

그 위에 비교과라는 양념을
뿌리는 게 바로 학종이라는 거예요.

00:31:37.554 --> 00:31:40.699

그렇기 때문에 교과는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31:40.799 --> 00:31:44.563

우리나라의 학종은 교과
중심 학종이에요.

00:31:44.663 --> 00:31:47.374

학종의 근간은 교과입니다.

00:31:47.474 --> 00:31:49.754
모든 교내 활동의 스타팅 포인트,

00:31:49.854 --> 00:31:53.121
출발점은 교과 활동에서
시작을 해야 돼요.

00:31:53.221 --> 00:31:59.735
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
있는 목적지도 역시 교과입니다.

00:31:59.835 --> 00:32:05.089
교과의 호기심으로 시작해서
다른 활동이 연결이 됩니다.

00:32:05.189 --> 00:32:10.812
그런데 이 연결점이 돌고 돌아서
나중에 교과로 돌아와야 돼요.

00:32:10.912 --> 00:32:14.947
이런 활동의 결과로 관련 교과의
성적이 올라야 되고요.

00:32:15.047 --> 00:32:19.669
이런 활동의 결과로 교과세특이
풍부해져야 되고요.

00:32:19.769 --> 00:32:24.107
이런 활동의 결과로 교내 활동,
교내 대회에서의 실적이

00:32:24.207 --> 00:32:26.773
어느 정도 드러나야 됩니다.

00:32:26.873 --> 00:32:30.902
이게 바로 학종의 가장 큰
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32:31.002 --> 00:32:34.217
교과, 수업 시간에 굉장히
많은 내용을 다룹니다.

00:32:34.317 --> 00:32:37.879
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가시면
옛날에 있었던 강의식 수업?

00:32:37.979 --> 00:32:39.762
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

00:32:39.862 --> 00:32:44.092
학종 중심은 관찰과 과정
중심의 전형이에요.

00:32:44.192 --> 00:32:47.529
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
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에서

00:32:47.629 --> 00:32:48.876
탈피하고자 합니다.

00:32:48.976 --> 00:32:50.822

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.

00:32:50.922 --> 00:32:55.495
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에서
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.

00:32:55.595 --> 00:32:58.972
이런 활동 내에서 여러분이
교내 활동에 대한

00:32:59.072 --> 00:33:00.715
단초를 찾아야 됩니다.

00:33:00.815 --> 00:33:03.806
여러분이 호기심을
교과 내에서 찾아야 되고요.

00:33:03.906 --> 00:33:08.919
교내 활동의 계기를
수업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.

00:33:09.019 --> 00:33:13.726
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
여러분의 활동들 하나하나가

00:33:13.826 --> 00:33:18.640
돌고 돌아서 관련 교과의 성적
상승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.

00:33:18.740 --> 00:33:22.988
그리고 교과세특에 하나하나
기록이 되어야 됩니다.

00:33:23.088 --> 00:33:26.317
그래서 학중에서는 교과라는 녀석이

00:33:26.417 --> 00:33:29.375
상당히 중요한 부분을
차지하고 있습니다.

00:33:29.475 --> 00:33:32.571
그래서 이 중요한
교과, 제가 3장에서

00:33:32.671 --> 00:33:35.646
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도록
하겠습니다.

00:33:35.746 --> 00:33:39.632
세 번째, 심화활동이
드러나줘야 됩니다.

00:33:39.732 --> 00:33:45.084
그런데 심화활동을 여러분이 굉장히
어려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.

00:33:45.184 --> 00:33:47.840
소논문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
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

00:33:47.940 --> 00:33:52.402

결코 심화활동은 어려운
활동이 아닙니다.

00:33:52.502 --> 00:33:56.814
제가 생각하는 심화활동은
여러분의 현재 수준,

00:33:56.914 --> 00:34:00.840
현재 활동보다
한 단계만 수준이 높으면

00:34:00.940 --> 00:34:04.271
그게 바로 심화활동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34:04.371 --> 00:34:06.451
책을 읽었습니다,
어떤 활동을 했어요.

00:34:06.551 --> 00:34:10.956
그런데 좀 더 이거에 대해
여러분이 심층적으로 알고 싶어요.

00:34:11.056 --> 00:34:13.095
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.

00:34:13.195 --> 00:34:14.316
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?

00:34:14.416 --> 00:34:18.881
좀 더 전공과 관련된 살짝
어려운 책을 읽으면 되죠.

00:34:18.981 --> 00:34:20.966
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
심화 독서라고 합니다.

00:34:21.066 --> 00:34:23.880
이게 바로 뭐니까?
일종의 심화활동이에요.

00:34:23.980 --> 00:34:29.160
여러분이 수업 중에서 뭔가 새로운
점을 발견했습니다, 궁금해요.

00:34:29.260 --> 00:34:32.312
독서도 했어요.
하다 보니까 뭐하고 싶습니까?

00:34:32.412 --> 00:34:33.911
연구하고 싶죠.

00:34:34.011 --> 00:34:37.001
연구하세요, 그게 바로 뭐니까?
심화활동이에요.

00:34:37.101 --> 00:34:41.120
그리고 심화활동의 끝판왕이라고
할 수 있는 소논문,

00:34:41.220 --> 00:34:42.663

당연히 심화활동입니다.

00:34:42.763 --> 00:34:46.701

심화활동은 소논문처럼 굉장히
어려운 활동일 수도 있지만,

00:34:46.801 --> 00:34:48.275

그렇게 어려운 활동은 아니에요.

00:34:48.375 --> 00:34:52.183

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
활동보다 한 단계라도 높으면

00:34:52.283 --> 00:34:55.585

그것을 바로 심화활동이라고
생각할 수도 있고요.

00:34:55.685 --> 00:34:57.344

그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면

00:34:57.444 --> 00:35:01.724

이 학생은 활동이 점점 심화되는
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,

00:35:01.824 --> 00:35:03.580

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.

00:35:03.680 --> 00:35:08.569

이렇게 평가자는
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.

00:35:08.669 --> 00:35:11.248

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려져야 돼요.

00:35:11.348 --> 00:35:14.220

굉장히 복잡하게 그림이 표현됐는데,

00:35:14.320 --> 00:35:17.725

일단 출발점은 교과에서
가지는 게 좋습니다.

00:35:17.825 --> 00:35:22.261

수업 중 여러분이 교과서를
읽다가 혹은 문제집을 풀다가,

00:35:22.361 --> 00:35:24.531

특히 국어 같은 게
굉장히 효과적입니다.

00:35:24.631 --> 00:35:27.073

국어 비문학 지문은
굉장히 많잖아요.

00:35:27.173 --> 00:35:31.665

그리고 이 비문학 지문이 굉장히
전공과 밀접한 지문이 많습니다.

00:35:31.765 --> 00:35:33.342

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.

00:35:33.442 --> 00:35:38.491

여기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
활동의 단초를 찾아야 됩니다.

00:35:38.591 --> 00:35:42.107
일단 교과에서 궁금증이
생기면 물어봅니다.

00:35:42.207 --> 00:35:44.202
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어요.

00:35:44.302 --> 00:35:47.390
혼자서 인터넷을 뒤지거나
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.

00:35:47.490 --> 00:35:49.144
이렇게 연결되는 거죠.

00:35:49.244 --> 00:35:53.287
독서를 혼자 하다보면 굉장히
어려운 점이 많습니다.

00:35:53.387 --> 00:35:56.105
그래서 생각이 비슷한
친구들을 모아서

00:35:56.205 --> 00:35:59.072
한 권의 책을 읽고 같이
토론할 수도 있어요.

00:35:59.172 --> 00:36:02.768
사고의 확장이고 아이디어의
확장이 될 수 있겠죠.

00:36:02.868 --> 00:36:05.132
뭘니까?
독서 토론입니다.

00:36:05.232 --> 00:36:08.304
독서 토론을 했습니다, 아깝죠.

00:36:08.404 --> 00:36:11.770
이 책의 내용에 대한
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
00:36:11.870 --> 00:36:15.586
작성된 보고서는
좀 더 내용을 심화하면

00:36:15.686 --> 00:36:17.418
심화 독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.

00:36:17.518 --> 00:36:23.306
보고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
교과 발표로 이어지게 돼요.

00:36:23.406 --> 00:36:24.720
독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36:24.820 --> 00:36:27.764
이런 교과 발표는 수행평가와
연결될 수도 있겠죠.

00:36:27.864 --> 00:36:29.892

수행평가 주제에 대한
거일 수도 있잖아요.

00:36:29.992 --> 00:36:33.064

수행평가 연구 보고서를 하면
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,

00:36:33.164 --> 00:36:34.655

수행평가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.

00:36:34.755 --> 00:36:35.968

그러면 이러한 내용은
언제 투영돼요?

00:36:36.068 --> 00:36:37.380

교과세특에 들어갈 수도 있고

00:36:37.480 --> 00:36:40.986

이러한 심화된 연결된
관심으로 인해서

00:36:41.086 --> 00:36:43.261

그 과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

00:36:43.361 --> 00:36:44.715

관심이 생기면 공부를 하게 되겠죠?

00:36:44.815 --> 00:36:46.696

성적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.

00:36:46.796 --> 00:36:48.892

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
어떻게 되는 겁니까?

00:36:48.992 --> 00:36:51.885

탐구보고서로 갈 수도 있고
소논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

00:36:51.985 --> 00:36:55.188

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
활동이 끝이 아니에요.

00:36:55.288 --> 00:36:58.538

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
이런 활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.

00:36:58.638 --> 00:37:00.743

독서가 독서 토론으로
갈 수도 있습니다.

00:37:00.843 --> 00:37:02.382

교과발표로 갈 수도 있어요.

00:37:02.482 --> 00:37:04.322

독서가 바로 이쪽으로
갈 수도 있습니다.

00:37:04.422 --> 00:37:06.437

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

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

00:37:06.537 --> 00:37:09.540
화살표는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다.

00:37:09.640 --> 00:37:11.843
그리고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.

00:37:11.943 --> 00:37:13.759
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.

00:37:13.859 --> 00:37:20.548
그래서 활동의 쌍방향성, 활동의 확장성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.

00:37:20.648 --> 00:37:21.723
제가 이야기했었죠?

00:37:21.823 --> 00:37:25.720
그래서 활동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 돼요.

00:37:25.820 --> 00:37:28.251
그리고 이러한 연결은
뭐가 필요하냐?

00:37:28.351 --> 00:37:31.454
성찰과 구체적인 전략이
필요한 겁니다.

00:37:31.554 --> 00:37:33.694
이러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.

00:37:33.794 --> 00:37:36.970
이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
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

00:37:37.070 --> 00:37:40.214
최소한 이 다음 단계까지는
생각을 하셔야 돼요.

00:37:40.314 --> 00:37:43.864
그리고 더 좋다면 전반적인
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.

00:37:43.964 --> 00:37:46.552
그런데 큰 그림을
그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

00:37:46.652 --> 00:37:49.256
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
힘들기 때문에

00:37:49.356 --> 00:37:51.680
아예 사람들이 사교육에 의존을
많이 하게 되는 거죠.

00:37:51.780 --> 00:37:56.345
컨설팅을 받게 되고 조언을
받게 되는 겁니다.

00:37:56.445 --> 00:37:58.965
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도 좋지만,

00:37:59.065 --> 00:38:04.418
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
이렇게 다음 단계만 그려도

00:38:04.518 --> 00:38:08.140
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.

00:38:08.240 --> 00:38:11.227
그래서 확장이 굉장히
중요한 겁니다.

00:38:11.327 --> 00:38:14.295
한번 구체적인 예를
들어보도록 할게요.

00:38:14.395 --> 00:38:18.354
어떤 학생이 생물 시간에
과학실험을 하게 됩니다.

00:38:18.454 --> 00:38:21.623
그래서 바나나 DNA
추출 실험을 하게 돼요.

00:38:21.723 --> 00:38:26.345
실험이라는 게 뭘니까? 학생들의
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이죠.

00:38:26.445 --> 00:38:29.826
그래서 많은 학생, 특히 이공계
학생들은 실험을 통해서

00:38:29.926 --> 00:38:31.840
자기의 전공을 정하게 되고요.

00:38:31.940 --> 00:38:34.221
자기의 관심 분야를
확정하게 됩니다.

00:38:34.321 --> 00:38:38.508
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
대한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?

00:38:38.608 --> 00:38:39.920
DNA 구조가 이러하네?

00:38:40.020 --> 00:38:42.052
그러면 다른 녀석의
DNA 구조는 어떨까?

00:38:42.152 --> 00:38:44.271
보통은 책을 많이 찾게 돼요.

00:38:44.371 --> 00:38:46.678
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
책도 읽었지만,

00:38:46.778 --> 00:38:49.293
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

논문을 찾아보게 됩니다.

00:38:49.393 --> 00:38:53.273

논문은 금방 찾아요, 검색만
하면 무료로 볼 수가 있고요.

00:38:53.373 --> 00:38:57.123

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거의
모든 논문이 다 있습니다.

00:38:57.223 --> 00:38:59.128

물론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
수준의 논문도 있지만,

00:38:59.228 --> 00:39:00.828

쉽게 풀어 쓴 논문도 있어요.

00:39:00.928 --> 00:39:03.424

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논문이
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돼요.

00:39:03.524 --> 00:39:07.738

그런데 읽어 보니까 논문이
생각보다 어렵습니다.

00:39:07.838 --> 00:39:10.890

그리고 간혹 영어로 된 게 많아요.

00:39:10.990 --> 00:39:15.233

이 학생은 영어에 대한 공부의
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.

00:39:15.333 --> 00:39:19.973

그래서 논문을 읽다가 내가 좀 더
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.

00:39:20.073 --> 00:39:22.458

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.

00:39:22.558 --> 00:39:24.361

그래서 이 학생이 영어
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.

00:39:24.461 --> 00:39:27.765

하다 보니까 절로 영어
실력이 올라가게 되고

00:39:27.865 --> 00:39:32.468

교내 영어 관련 대회에서
수상을 하게 됩니다.

00:39:32.568 --> 00:39:35.152

처음 시작한 교과서에
대한 호기심이었어요.

00:39:35.252 --> 00:39:37.410

호기심이 독서로 연결됩니다.

00:39:37.510 --> 00:39:41.213

독서라는 게 전혀 다른 분야인
영어 과목으로 투영이 되고요.

00:39:41.313 --> 00:39:44.057

그 결과 이 학생의 영어
성적은 오를 수도 있고

00:39:44.157 --> 00:39:47.012

교회 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도
있게 되는 겁니다.

00:39:47.112 --> 00:39:52.171

이게 바로 확장의 힘이고 스토리
있는 학생부라는 거예요.

00:39:52.271 --> 00:39:54.151

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

00:39:54.251 --> 00:39:58.177

어떤 학생은 영어 토론
대회에 나가려고 했습니다.

00:39:58.277 --> 00:40:00.218

혹은 영어 경시 대회 준비를 해요.

00:40:00.318 --> 00:40:04.087

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영어에
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.

00:40:04.187 --> 00:40:06.083

영어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.

00:40:06.183 --> 00:40:07.544

그러다보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?

00:40:07.644 --> 00:40:10.747

이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
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요.

00:40:10.847 --> 00:40:14.648

영어 수업 시간에 행해졌던
수행평가에 대해서

00:40:14.748 --> 00:40:17.443

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.

00:40:17.543 --> 00:40:19.892

이거를 바탕으로 해서
영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.

00:40:19.992 --> 00:40:23.685

그리고 이 학생은 평상시에 초등학교
교사가 되고 싶었던 친구입니다.

00:40:23.785 --> 00:40:28.308

그리고 방과 후, 주말,
방학 때는 초등학교에 가서

00:40:28.408 --> 00:40:31.422

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봐주게 돼요.

00:40:31.522 --> 00:40:32.684

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.

00:40:32.784 --> 00:40:36.967
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
초등학생들의 영어 사용 빈도에 대한,

00:40:37.067 --> 00:40:39.090
영어 교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

00:40:39.190 --> 00:40:42.209
이에 대한 R&E 보고서를
작성하게 됩니다.

00:40:42.309 --> 00:40:46.011
어떻습니까?
단순히 교내 대회 준비였는데,

00:40:46.111 --> 00:40:48.368
여기서 상을 타고 끝난 게 아니라

00:40:48.468 --> 00:40:50.770
영어를에 대한 관심으로
투영이 되게 되고요.

00:40:50.870 --> 00:40:54.412
이 영어에 대한 관심은
이 학생의 진로였던, 꿈이었던

00:40:54.512 --> 00:40:56.908
초등학교 교사에 투영이
돼요, 봉사 활동이죠.

00:40:57.008 --> 00:41:01.512
그리고 이거는 심화활동인 R&E
보고서까지 확장되게 됩니다.

00:41:01.612 --> 00:41:03.304
이게 바로 뭐니까?

00:41:03.404 --> 00:41:08.487
확장이고 스토리 라인을 갖추게
되는 학생부라는 거예요.

00:41:08.587 --> 00:41:09.912
그래서 뭐라고 했어요?

00:41:10.012 --> 00:41:13.414
한 단계 활동을 했을 때 여기서
끝내지 말아야 됩니다.

00:41:13.514 --> 00:41:17.327
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
할지 생각하셔야 돼요.

00:41:17.427 --> 00:41:21.045
이게 바로 학종이 원하는
여러분의 학생부입니다.

00:41:21.145 --> 00:41:26.157
이 확장은 교과를 중심으로
하셔서 동아리든,

00:41:26.257 --> 00:41:31.059
아니면 자유로운 활동이든
교내 대회든 독서든 진로 활동이든

00:41:31.159 --> 00:41:34.693
봉사활동이든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
연결이 돼있어야 돼요.

00:41:34.793 --> 00:41:36.293
그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다?

00:41:36.393 --> 00:41:40.458
교과라는 녀석이 있다는 거를
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.

00:41:40.558 --> 00:41:43.535
확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41:43.635 --> 00:41:48.951
연계성을 띠어야 되고 각각의
활동은 연결점을 가져야 돼요.

00:41:49.051 --> 00:41:52.960
하지만 그 연결의 출발점과 목적지,

00:41:53.060 --> 00:41:54.867
즉 중심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단?

00:41:54.967 --> 00:41:57.409
교과라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.

00:41:57.509 --> 00:42:01.622
그리고 반드시 지금
현재하고 있는 활동보다는

00:42:01.722 --> 00:42:06.365
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심화활동이
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.

00:42:06.465 --> 00:42:09.361
이게 바로 확장의 키포인트고

00:42:09.461 --> 00:42:12.062
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
되는 부분입니다.

00:42:12.162 --> 00:42:15.208
그러면 이렇게 확장성 보셨잖아요.

00:42:15.308 --> 00:42:16.483
그런데 굉장히 복잡합니다.

00:42:16.583 --> 00:42:20.020
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그 다음
단계까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.

00:42:20.120 --> 00:42:21.493
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?

00:42:21.593 --> 00:42:24.804
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

00:42:24.904 --> 00:42:29.388

그런데 이러한 계획과 전략은
처음부터 나오기가 힘듭니다.

00:42:29.488 --> 00:42:31.626

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.

00:42:31.726 --> 00:42:34.241

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가
이 활동을 했을 때

00:42:34.341 --> 00:42:37.521

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
어떠한 점이 필요한지

00:42:37.621 --> 00:42:40.074

어떠한 점을 보완해야
되는지 알아야 됩니다.

00:42:40.174 --> 00:42:44.575

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?
기록이라는 녀석입니다.

00:42:44.675 --> 00:42:48.339

계획과 전략이라는 거는 하나의
활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.

00:42:48.439 --> 00:42:50.456

이후 활동까지 생각을
하셔야 되는 겁니다.

00:42:50.556 --> 00:42:53.458

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
기록을 하셔서

00:42:53.558 --> 00:42:57.255

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하고
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,

00:42:57.355 --> 00:42:59.289

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

00:42:59.389 --> 00:43:03.485

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?
기록입니다.

00:43:03.585 --> 00:43:06.400

이 기록은 학생부에 기재된
기록이 아니에요.

00:43:06.500 --> 00:43:11.051

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여러분이
스스로 쓴 기록입니다.

00:43:11.151 --> 00:43:14.340

그래서 학생부라는 게
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

00:43:14.440 --> 00:43:19.624

활동의 내용 하나하나를 일기 쓰듯이

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43:19.724 --> 00:43:23.795

기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
확장의 단초가 돼요.

00:43:23.895 --> 00:43:27.670

그리고 학교에 제출하게 될
보고서의 근거 자료가 되고요.

00:43:27.770 --> 00:43:32.611

여러분 3학년에 쓰게 될 자소서
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

00:43:32.711 --> 00:43:35.006

확장의 단초입니다.

00:43:35.106 --> 00:43:37.030

확장의 단초라는 게 뭐죠?

00:43:37.130 --> 00:43:41.526

이 활동을 했을 때 뭔가 부족한
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.

00:43:41.626 --> 00:43:46.123

여러분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
부족한 점, 뭔가 문제점.

00:43:46.223 --> 00:43:49.659

이런 것들을 항상
기록을 해놓으세요.

00:43:49.759 --> 00:43:52.386

그리고 다음 활동을 해요.

00:43:52.486 --> 00:43:55.318

자기가 UCC 대회에 나갔습니다?
그런데 실패했어요.

00:43:55.418 --> 00:43:56.927

뭔가 부족한 점이 있겠죠.

00:43:57.027 --> 00:44:00.413

이 부족한 점을 보완한
것들을 기록하셔야 됩니다.

00:44:00.513 --> 00:44:05.516

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고
그거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을 때,

00:44:05.616 --> 00:44:08.443

바로 이러한 기록은 여러분의 성장,

00:44:08.543 --> 00:44:12.591

업그레이드의 밑거름이
될 수 있습니다.

00:44:12.691 --> 00:44:14.088

그래서 기록이 굉장히
중요한 거예요.

00:44:14.188 --> 00:44:17.540
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활동을
할 때 다 잊어버리게 되고

00:44:17.640 --> 00:44:20.928
결국 또 다른 실패를
낳게 되는 겁니다.

00:44:21.028 --> 00:44:22.316
예를 들어 볼게요.

00:44:22.416 --> 00:44:25.846
어떤 학생이 UCC 대회에
참여하고 싶어했습니다.

00:44:25.946 --> 00:44:30.881
하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
갈등이 생겨요.

00:44:30.981 --> 00:44:34.139
소재에 대한 의견이
안 맞을 수도 있고요.

00:44:34.239 --> 00:44:38.607
진행 과정에 있어서
친구들 간의 다툼이 있겠죠.

00:44:38.707 --> 00:44:40.863
그리고 각자 스케줄이
바쁘기 때문에,

00:44:40.963 --> 00:44:43.029
일정에 대한 문제점도
생길 수 있어요.

00:44:43.129 --> 00:44:47.009
그리고 UCC가 독창성이
굉장히 중요한 대회잖아요?

00:44:47.109 --> 00:44:52.382
그런데 독창성을 돋보이게 할 만한
소재의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.

00:44:52.482 --> 00:44:55.652
그리고 촬영 기법도 필요하게 되죠.

00:44:55.752 --> 00:44:58.196
어떻게 찍어야 되고
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

00:44:58.296 --> 00:45:02.423
어떻게 편집하는지가 굉장히 복잡한
활동 자체가 UCC 대회인데.

00:45:02.523 --> 00:45:03.949
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어요.

00:45:04.049 --> 00:45:07.547
이 UCC 대회가 굉장히
기간이 길기는 하지만,

00:45:07.647 --> 00:45:11.508

많은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지는 않아요.

00:45:11.608 --> 00:45:13.875

대부분 일주일 내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,

00:45:13.975 --> 00:45:16.075

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?

00:45:16.175 --> 00:45:19.639

결국에는 목표했던 수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.

00:45:19.739 --> 00:45:24.525

그런데 수상을 실패했다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좋을 게 없어요.

00:45:24.625 --> 00:45:29.455

왜냐하면 학생부에는 대회 결과만 적힙니다.

00:45:29.555 --> 00:45:32.129

어떤 결과?
수상하는 내용만 적혀요.

00:45:32.229 --> 00:45:36.589

수상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,

00:45:36.689 --> 00:45:38.209

원칙적으로는.

00:45:38.309 --> 00:45:39.381

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?

00:45:39.481 --> 00:45:42.442

어떻게든 다음에는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.

00:45:42.542 --> 00:45:46.953

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를 써줘야 돼요?

00:45:47.053 --> 00:45:48.833

부족한 점을 기록하셔야 됩니다.

00:45:48.933 --> 00:45:53.265

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.

00:45:53.365 --> 00:45:56.735

그리고 이를 보완할 만한 해결점을 써주셔야 됩니다.

00:45:56.835 --> 00:46:00.043

그리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하셔야 돼요.

00:46:00.143 --> 00:46:02.901

이거를 기록으로
남겨두셔야 됩니다.

00:46:03.001 --> 00:46:06.557

기록으로 남겨야지 나중에
큰 도움이 돼요.

00:46:06.657 --> 00:46:09.789

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
위해서 뭐를 하게 돼요?

00:46:09.889 --> 00:46:11.302

독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.

00:46:11.402 --> 00:46:12.907

왜냐하면 소재를 찾아야 되잖아요?

00:46:13.007 --> 00:46:14.183

신문을 많이 보게 돼요.

00:46:14.283 --> 00:46:16.904

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거를
더 접하게 됩니다.

00:46:17.004 --> 00:46:19.456

그리고 이런 것들은
혼자 하기 힘들니까

00:46:19.556 --> 00:46:21.539

아예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,
자유 동아리를.

00:46:21.639 --> 00:46:23.034

UCC 동아리를 만들고요.

00:46:23.134 --> 00:46:26.090

컴퓨터 배우는 거, 프로그램
다루는 거, 촬영을 다루는

00:46:26.190 --> 00:46:27.533

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.

00:46:27.633 --> 00:46:31.336

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프로그램에
대한 촬영 기법에 대한

00:46:31.436 --> 00:46:33.653

배움을 하게 되겠죠.
뭐가 되는 거예요?

00:46:33.753 --> 00:46:37.394

업그레이드가 되고 확장이
되고 성장을 하게 돼요.

00:46:37.494 --> 00:46:43.214

이 결과 이 학생은 그 다음 UCC
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을 하겠죠.

00:46:43.314 --> 00:46:44.507

그래서 뭐니까?

00:46:44.607 --> 00:46:47.418

이러한 기록을 하지 않으면
부족한 점이 뭐였는지

00:46:47.518 --> 00:46:50.871

자기가 뭐가 필요했는지
되새기지 못하기 때문에,

00:46:50.971 --> 00:46:53.147

성공하기가 힘들어요.

00:46:53.247 --> 00:46:57.339

그래서 기록은 실패했었던
부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

00:46:57.439 --> 00:47:00.827

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자
기본 베이스라는 거.

00:47:00.927 --> 00:47:03.202

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.

00:47:03.302 --> 00:47:05.760

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
수상을 하게 되고

00:47:05.860 --> 00:47:09.649

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이
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.

00:47:09.749 --> 00:47:10.992

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?

00:47:11.092 --> 00:47:14.424

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
학생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겠죠.

00:47:14.524 --> 00:47:20.187

그리고 기록은 여러분의
활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.

00:47:20.287 --> 00:47:21.689

왜냐하면, 교내 대회 같은 것도

00:47:21.789 --> 00:47:24.336

교내 대회 참석에 대한
내용이 기재가 못 돼요.

00:47:24.436 --> 00:47:27.663

하지만 많은 학교는
대회라는 명칭을 빼고

00:47:27.763 --> 00:47:31.927

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회해서
많이 기록을 해줍니다.

00:47:32.027 --> 00:47:36.332

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한 과정,
굉장히 아깝잖아요.

00:47:36.432 --> 00:47:38.805

이러한 것들이 학생부에
기재되면 좋은데

00:47:38.905 --> 00:47:42.306

그냥 가서 무턱대고 선생님,
저 했는데 써주세요.

00:47:42.406 --> 00:47:47.179

이렇게 하기에는 선생님이 당황할 수도
있고 대부분 안 써주십니다.

00:47:47.279 --> 00:47:48.531

근거가 있어야 돼요.

00:47:48.631 --> 00:47:52.587

따라서 하나 하나의 과정에
대한 기록을 남겨서

00:47:52.687 --> 00:47:55.964

보고서 형태로 만든
다음에 제출하게 되면

00:47:56.064 --> 00:48:00.030

그 내용이 학생부에
기재될 수가 있게 됩니다.

00:48:00.130 --> 00:48:04.198

이러한 내용은 교과세특, 즉 수업
시간에 관련된 발표를 하거나

00:48:04.298 --> 00:48:06.971

관련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하면

00:48:07.071 --> 00:48:10.390

당연히 그 교과와 연관되기 때문에
교과세특에 적게 되겠죠.

00:48:10.490 --> 00:48:12.619

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되면,

00:48:12.719 --> 00:48:16.572

자율 활동이라든가
개인 세부 특기 사항 있죠?

00:48:16.672 --> 00:48:20.943

개인 세특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
기록이 될 수가 있게 돼요.

00:48:21.043 --> 00:48:25.379

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
모든 활동을 하고 나서

00:48:25.479 --> 00:48:27.350

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.

00:48:27.450 --> 00:48:30.404

이런 보고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

00:48:30.504 --> 00:48:36.158

각각의 활동을 하면서 세세하게

기록을 했던 거예요.

00:48:36.258 --> 00:48:37.489

굉장히 중요해요.

00:48:37.589 --> 00:48:44.093

그리고 이 기록은 자소서로
쓸 때 정말 그 어떤 자료보다

00:48:44.193 --> 00:48:46.236

큰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.

00:48:46.336 --> 00:48:50.875

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소서를
고3이 되면 쓰기 시작을 합니다.

00:48:50.975 --> 00:48:53.183

고3 초에 시작을 하거나

00:48:53.283 --> 00:48:57.493

늦게 쓰는 친구들은 고3
여름방학 때 쓰기 시작을 해요.

00:48:57.593 --> 00:49:02.400

문제는 여러분의 자소서에
녹여서 쓸 활동들이

00:49:02.500 --> 00:49:04.378

과거의 활동이라는 겁니다.

00:49:04.478 --> 00:49:09.941

가깝게는 6개월이고 멀게는 2년
전에 있었던 활동을 쓰는 거예요.

00:49:10.041 --> 00:49:13.112

그런데 참고하려고 봤더니
학생부에는 뭐만 기록이 됩니까?

00:49:13.212 --> 00:49:16.825

결과 위주로 기록되어있는
확률이 높아요.

00:49:16.925 --> 00:49:20.788

물론 학생부에 과정까지
기록이 되어있으면 좋겠죠.

00:49:20.888 --> 00:49:23.192

그런 학생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

00:49:23.292 --> 00:49:26.757

대부분의 학생부에는 결과만
적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00:49:26.857 --> 00:49:30.555

그래서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
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,

00:49:30.655 --> 00:49:34.560

느끼고 배운 점을 채우는 데에
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.

00:49:34.660 --> 00:49:38.423

제가 여러 학생의
자소서를 첨삭을 해봤는데,

00:49:38.523 --> 00:49:41.286

거의 60% 이상의 학생들이

00:49:41.386 --> 00:49:46.171

50%를 차지해야 될 느끼고
배운점의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.

00:49:46.271 --> 00:49:50.609

왜냐하면 2년 전의 이 활동을
통해서 무엇을 느끼고

00:49:50.709 --> 00:49:53.684

어떤 점을 배웠는지 생각이
안 나게 되거든요.

00:49:53.784 --> 00:49:56.732

그러다 보니까 중복된
표현을 쓰게 되고

00:49:56.832 --> 00:49:58.822

오히려 빼버리는 경우가
생기게 돼요.

00:49:58.922 --> 00:50:01.088

그런데 기록을
충실하게 한 학생들.

00:50:01.188 --> 00:50:03.951

자기가 이 활동을 통해서
무엇을 느꼈고

00:50:04.051 --> 00:50:08.789

그 당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
생생하게 기록을 한 학생들은

00:50:08.889 --> 00:50:12.545

남들과 차별화되는
생생한 느낌이 들고

00:50:12.645 --> 00:50:16.328

느끼고 배운 점이 충분한
자소서를 쓰게 됩니다.

00:50:16.428 --> 00:50:17.721

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.

00:50:17.821 --> 00:50:20.468

하나의 활동, 지금 느끼고
있는 모든 감정,

00:50:20.568 --> 00:50:24.697

그리고 여러분의 사향을
세세하게 기록한 기록지는

00:50:24.797 --> 00:50:28.741

풍부한, 스토리 있고 재미난
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

00:50:28.841 --> 00:50:30.837
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.

00:50:30.937 --> 00:50:35.626
여러분은 이런 기록지를
마련해둘 필요가 있어요.

00:50:35.726 --> 00:50:40.061
이 기록지 양식은 제가
자료실에 올려 놓을 겁니다.

00:50:40.161 --> 00:50:42.760
이런 기록지 양식이 아니어도 돼요.

00:50:42.860 --> 00:50:45.576
그냥 일기 형식으로 써도 됩니다.

00:50:45.676 --> 00:50:49.453
대신에 이런 양식을 쓰면
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고

00:50:49.553 --> 00:50:53.795
나중에 자소서라든가 학교에
제출하게 될 보고서를 쓸 때

00:50:53.895 --> 00:50:55.802
뭔가 틀을 갖추게 되겠죠.

00:50:55.902 --> 00:50:59.433
보시면 시기도 있고
제목도 있고

00:50:59.533 --> 00:51:01.708
어떤 활동에 해당되는지
써주는 게 좋아요.

00:51:01.808 --> 00:51:04.481
그리고 동기,
활동 내용, 나의 역할,

00:51:04.581 --> 00:51:09.157
그리고 활동에 관련된 에피소드,
결과 및 결과 분석, 느끼고 배운 점.

00:51:09.257 --> 00:51:13.934
그리고 이 활동이 다른 활동으로 어떻게
연결되는지를 써주셔야 됩니다.

00:51:14.034 --> 00:51:17.240
예를 들어 1학년 때의 활동입니다.

00:51:17.340 --> 00:51:23.420
1학년 2학기 때 2017년 8월부터
9월 사이에 한 활동이에요.

00:51:23.520 --> 00:51:27.453
그리고 이 활동은 UCC 발표
대회에 참여한 것입니다.

00:51:27.553 --> 00:51:29.672

이 내용은 보통 교내
대회가 되겠죠.

00:51:29.772 --> 00:51:33.148
이 학생의 동기는
장래희망인 피디였습니다.

00:51:33.248 --> 00:51:35.856
물론 쓸 때는 굉장히
세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.

00:51:35.956 --> 00:51:37.819
피디가 꿈인 학생이었어요.

00:51:37.919 --> 00:51:43.514
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
이거를 권유하게 돼요.

00:51:43.614 --> 00:51:47.314
그래서 UCC 대회에
참가하게 됩니다.

00:51:47.414 --> 00:51:55.266
참가해서 이 학생은 학교 홍보와
관련된 UCC 제작을 하게 됩니다.

00:51:55.366 --> 00:52:00.910
그리고 학교의 특색을 위주로
UCC를 만들게 되었죠.

00:52:01.010 --> 00:52:05.948
그리고 이 학생의 역할은 촬영과
각본을 담당하게 됐어요.

00:52:06.048 --> 00:52:15.162
그리고 주제는 SNL의
3분 친구를 패러디.

00:52:15.262 --> 00:52:19.455
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의
3분 친구를 패러디하게 됩니다.

00:52:19.555 --> 00:52:22.333
그런데 친구들이랑
의견이 안 맞았어요.

00:52:22.433 --> 00:52:24.996
소재에 대한 의견이
안 맞을 수도 있고

00:52:25.096 --> 00:52:27.589
촬영 일정 같은 게
늦어질 수도 있죠.

00:52:27.689 --> 00:52:29.688
각종 갈등 사항을 써주는 거예요.

00:52:29.788 --> 00:52:33.355
그리고 너무 급하게 편집하다
보니까 결국 수상을 못했습니다.

00:52:33.455 --> 00:52:36.872

그리고 수상을 못하게 된
결과 분석을 써주는 거예요.

00:52:36.972 --> 00:52:39.426

왜 못하게 됐는지,
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

00:52:39.526 --> 00:52:41.174

아이들과 좀 더 대화를
많이 할 필요가 있다.

00:52:41.274 --> 00:52:45.986

이 대화를 통해 팀원들과의 조율,
대화,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

00:52:46.086 --> 00:52:48.970

다양한 소재가 필요하다는
거를 알게 됩니다.

00:52:49.070 --> 00:52:52.204

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의
필요성도 느끼게 되죠.

00:52:52.304 --> 00:52:56.207

그리고 이 학생은 나중에 광고
관련 독서를 하게 되고요.

00:52:56.307 --> 00:53:01.027

문화면의 신문 읽기, 대중문화
연구 동아리를 만들게 돼요.

00:53:01.127 --> 00:53:06.058

이러한 내용을 활동 기록지에
하나하나 세세하게 써줘야 됩니다.

00:53:06.158 --> 00:53:09.739

이러한 것들은 보고서 쓸 때
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.

00:53:09.839 --> 00:53:13.669

나중에 고3이 돼서 자소서를 쓸 때

00:53:13.769 --> 00:53:18.841

정말 학생부보다 오히려 더
좋은 자소서의 글감이 되고

00:53:18.941 --> 00:53:22.338

자소서에 드는 노력도
줄어들게 돼요.

00:53:22.438 --> 00:53:26.918

왜냐하면 이 자체가 자소서 항목에
맞게 제가 마련해놨기 때문에,

00:53:27.018 --> 00:53:28.945

이 양식을 계속 쓰시면

00:53:29.045 --> 00:53:34.547

기록지를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
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

00:53:34.647 --> 00:53:38.435

이런 기록지는 하나하나
차곡차곡 모아놓으셔야 됩니다.

00:53:38.535 --> 00:53:40.115

따로 따로 해놓으시면 안 돼요.

00:53:40.215 --> 00:53:45.225

하나의 파일 안에
모아놓으셔야 돼요.

00:53:45.325 --> 00:53:52.632

클리어 파일을 사서 모든 활동할 때마다
작성을 하시고 넣어놓으세요.

00:53:52.732 --> 00:53:56.315

그러면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?
실적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.

00:53:56.415 --> 00:53:59.611

굉장히 큰 자료가 되기 때문에
이런 기록지를 만드는 거는

00:53:59.711 --> 00:54:04.240

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
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

00:54:04.340 --> 00:54:08.082

스토리, 확장, 기록
학종의 키워드입니다.

00:54:08.182 --> 00:54:10.541

스토리는 뭐가 느껴져야 돼요?

00:54:10.641 --> 00:54:13.137

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이
느껴져야 되고요.

00:54:13.237 --> 00:54:15.182

노력과 성찰이 들어가야 되고요.

00:54:15.282 --> 00:54:18.187

그로 인한 성장 포인트가
드러나야 됩니다.

00:54:18.287 --> 00:54:20.923

그리고 하나의 활동에
그치지 않는 확장.

00:54:21.023 --> 00:54:24.220

즉 활동의 연계와
연결이 드러나야 되고

00:54:24.320 --> 00:54:27.398

그 확장의 중심에는 교과가 있다.

00:54:27.498 --> 00:54:30.767

그리고 심화활동이 드러나야 된다.
그래서 뭐가 필요하다?

00:54:30.867 --> 00:54:33.181
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.

00:54:33.281 --> 00:54:37.003
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과
전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

00:54:37.103 --> 00:54:39.374
기록이 굉장히 잘 이뤄져야 된다.

00:54:39.474 --> 00:54:42.471
기록은 확장의 단초로
역할을 하게 되고요.

00:54:42.571 --> 00:54:48.019
학생부 기재를 위한 보고서와 자소서를
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.

00:54:48.119 --> 00:54:53.838
따라서 여러분은 무조건 모든 활동에
대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.

00:54:53.938 --> 00:54:55.186
이게 바로 뭐니까?

00:54:55.286 --> 00:54:57.897
학생부를 만들기 위한 풍부한 학생부,

00:54:57.997 --> 00:55:02.404
스토리 라인이 있는 학생부를 위한
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.

00:55:02.504 --> 00:55:04.875
제가 왜 스토리와 확장과 기록을

00:55:04.975 --> 00:55:08.302
스토리 있는 학생부 만들기
1강의 주제로 삼았느냐?

00:55:08.402 --> 00:55:09.721
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.

00:55:09.821 --> 00:55:12.468
이것만 제대로 이해한 학생이라면

00:55:12.568 --> 00:55:17.405
굳이 2, 3, 4, 5강을 들을 필요가
없습니다,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.

00:55:17.505 --> 00:55:23.606
학생부를 만드는 키포인트는 확장이고
연결이고 스토리 라인입니다.

00:55:23.706 --> 00:55:25.157
이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

00:55:25.257 --> 00:55:30.486
모든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
세세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.

00:55:30.586 --> 00:55:34.074

나만의 스토리 있는
학생부 만들기 1강,

00:55:34.174 --> 00:55:38.065

스토리 확장 기록에
대한 강의였습니다.

00:55:38.165 --> 00:55:42.826

다음 강의는 제가 이야기했었죠?
진로.

00:55:42.926 --> 00:55:46.034

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
강조해드릴 겁니다.

00:55:46.134 --> 00:55:49.545

어떻게 진로를 찾고 도움이
되는 사이트는 무엇이고

00:55:49.645 --> 00:55:52.438

어떻게 진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

00:55:52.538 --> 00:55:56.653

다음 시간에 꼼꼼하게
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